

## 산으로 간 배들

글. 박영택 미술평론가, 경기대학교수

### 화원의 경계

전은선은 비닐하우스를 찍었다. 이 비닐하우스들은 그러나 비닐하우스로서의 삶, 존재가 상실된 것들이다. 더 이상 작물과 화훼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폐허로 변해버린 장소들을 흑백사진으로 찍고 있는 것이다. 소멸과 죽음과 부재를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을 정지시키고 사진에 거역하고자 하는 금기의 위반이라는 짜릿한 모반의식과 쾌감에 사로잡혀 있다. 한 장의 사진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져버린 것들, 더 이상 실체화할 수 없는, 기억과 재생으로 복원될 수 없는 것들을 아프게 되살려주는 의식과 닮아 있다. 모든 사진은 결국 '상처'이다.

경작되고 생성되는 장소성으로써의 화원,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버려지고 더 이상의 경작이 진행되지 않는 곳, 생명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 펼쳐지는 장소성이 강하게 환기되는 장소를 찍고 있는 전은선은 버려진 비닐하우스에게 초혼제를 지내는 것 같다.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하고 불안하며 심지어 그로테스크하다. 흑백의 톤은 그 불가사의한 공포, 긴장을 자극한다. 덮개 역할을 하는 비닐이 찢겨져 나간 상처 구멍이 송송 뚫린 내부,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와 풀, 나무줄기 등이 마구 헝클어져 있다. 후경으로 자리한 비닐들이 그런 폐허와 소멸의 상흔들을 보여준다면, 전면에 가득 찬 잡초, 들풀들 그리고 비닐을 타고 가로 질러 가는 무성한 담쟁이들은 그와 정반대의 성격을 띤다. 죽음과 삶, 폐허 속에서 진행되는 생명의 운동이 은밀히 감축된다.

생명이 부재한 곳은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다. 작가의 렌즈에 걸린 대상들은 그런 비닐하우스를 숨죽여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관음적 시선 아래 포착된 것들이다. 인간이 부재한 공간, 폐허로 돌변한 공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기묘한 긴장과 불안을 준다. 그것에서 그의 눈에 잡힌 것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같은 공간에서도 삶, 생명이 진행되는 한 장면이다. 그것은 비닐을 타고 엉켜 붙어가는 담쟁이 혹은 잡초, 자생적인 들풀들의 무서운 성장력에서 놀랍게 감지된다. 그것이 자연의 힘이다. 물기와 곰팡이 습기와 눅눅함, 밖과 안의 기온차에 의해 맺힌 물방울들이 이들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인간의 손길과 보온의 비닐로 곱게 자라 시장에 내다 팔린 작물들이 거둬진 장소에 잡초들만이 왕성하게, 무식하게 자라고 있다. 잡초는 빈자리를 메워간다. 잡초의 노마드적 생명력은 구획과 경계와 분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곳에 자리를 잡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한편으로는 새카맣게 말라 죽어가는 잡풀들도 보인다. 이 퇴락하고 황폐화된 그러나 자연의 질서, 순환이 무섭게 진행되는 장소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작가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시간의 부재를 강하게 환기시켜준다.

이 비닐하우스란 공간은 사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분리해놓은 공간이다. 그것은 본래 자연의 공간에 경계를 치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킨 것이다. 사실 정원, 화원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자연공간이 그 화원, 정원은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정원, 에덴(파라다이스)에의 강한 향수와 갈망이었다. 잃어버렸던 그 곳, 그 때 인간이 독점했었던 그 공간을 다시금 내 눈앞에 펼쳐놓고자 하는 욕망이 서구인들

에게 정원과 화원을 만든 동인이다. 또한 온실, 비닐하우스는 사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지배, 장소의 지배를 받는 자연 / 식물을 인간의 손아래 지배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의 반영이다. 이제 계절과 시간, 장소조차 인간이 완벽하게 소유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비닐하우스를 통해 겨울날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이죽의 과인 온갖 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비닐하우스가 오늘날 우리들의 낙원이고 에덴이다. 어쩌면 '에덴'은 이미 완벽하게 실현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절멸시키며 우지의 순리와 이치를 거스르는 인간의 무서운 이기와 욕망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

전은선은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통해 인간 욕망의 한 부분을 은밀히 고발한다. 다큐멘터리적 속성이 얼핏 감지되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다. 자신의 이기심과 목적, 자본의 구현에 따라 땅을 구획하고 분리시켜 경작해 놓고 이렇게 황폐해진 땅을 방치하고 사라져버린 자신의 자리를 자연 스스로가 치유하고 있는 안쓰러움이 스며있다. 잡초와 들풀들은 그 상처를 제 몸으로, 온몸으로 메워나간다. 그것들은 인간이 설정한 인위적 분류와 틀을 지워나간다. 어쩌면 전은선의 작업은 그 경계에서 이뤄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